

광주시의회 '비리 의원' 윤리위 회부

폭력 연루 의원들 제외 빙축

"제 식구 감싸기...시민에 직접 사과해야"

광주시의회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추태를 보인 의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를 착수키로 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남일 의원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K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징계 대상으로 검토한 의원 중 상

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송모(51·서구 1·전모(43·북구 3) 의원 등은 제외됐다. 폭력 사건의 경우 우발적 인 사고로 해당 의원이 지난 17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사과했고 본인들이 화해한 뒤 반성하고 있는 만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했는데,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이 아닌 동료 의원

들에게 사과하는 것만으로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나친 봉주기라는 지적이 시의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최소한 주민들을 상대로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28일과 29일 제 172회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 보고를 한 뒤 윤리위원회를 소집,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시의회 의정비 반납하라"

원구성 못하고 한달여 파행...시민사회단체 반환소송도 검토

나주시의회가 20일 넘게 원(院) 구성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가 의정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따라 의회와 시민단체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나주시당시민회 등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시의회의 민주적 운영 및 제도개선 촉구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시의회를 방문, 7월분 의정비 반납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원구성도 못한 채 한달여 장기파행이 계속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달분 의정비 317만

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07만 원)씩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의 이런 주장에 무소속(5명) 의원들은 동의한 반면 민주당(9명·비례 2명 포함) 소속 의원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측 협상 참구를 맡고 있는 정도 의원은 "의장단 구성은 의회 사설상 매일 의회에 나와 노력한 만큼 무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의장단 구

성에 나섰으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대립하는 바람에 한달 넘도록 원 구성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일 의정파행에 대한 책임 전가와 상호 비방 성명서를 내는 등 신뢰회복도 물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시민대책위는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의정비 반환소송은 의회 출입 봉쇄 등도 검토하고 있다./나주=정철현기자 chjung@

美 "한국측 분담금 50%로 늘려달라"

한·미 방위비 분담 1차 고위급 협의

후반기 한·미 동맹과 관련된 최대 이슈가 될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양국 간 제1차 고위급 협의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원협정(SOFA)' 제5조(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의 예외 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새로 체결해 왔으며 지난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양국은 이날 다시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경비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나 미국측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분담규모를 늘릴 것을 요구, 이 문제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을 부담,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기준에 42% 정도를 제공했다.

이날 첫 협의에는 한국측은 조병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주미 대사관 관계자 등이,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수석대표를 비롯해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현재(42%) 부담비율을 절반인 50%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측은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재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꾸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큰 입장차를 드러냈다./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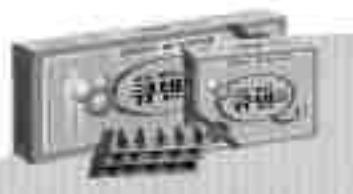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글신의'의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글신의'의 마음처럼 딸신께서도 놀 끄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행복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들은 도움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멘자일 Q10화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급

프로비아, 칸디, 쿠데, 헨클, 벤会觉得, 노년

- 페인트로드는 허락, 티끌을

생모, 자궁암 치료, 비뇨기과, 소아과, 정부

의약품 - 허약 및 약물

보호약물 - 비뇨기과 치료, 소아과, 정부

의약품 - 비뇨기과

●국제약은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제약사입니다.

●국제약은 대한